

게재일자	2008.2.19	매체명	경기일보	게재면	크기	
제 목	북가경영희생지원 13억 투입					
관련사업	북준마를	보도원전	차량제운	보도성향	은전	부서명
기사타입	양평지사					

경기일보

북가경영희생지원 13억 투입

북준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한국농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
사(지사장 전중원, 이하 농촌공사)가
통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
해를 비롯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원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
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함으로써 농
가의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제도다.
특히 농가가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감은 후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입차(5~
8년)해 영농할 수 있으며, 매년 농지
가격 1% 이하의 입차료만 납부한다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 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나, 최근 3년 중 농업채무로 인해 50%
의 농가 피해를 입어 경영위기에 처
한 양평, 광주지역 농민 또는 농업
법인으로 이렇할까지 한국농촌공사

양평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금년도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이는 예년처럼 예산을 초
파하는 상황임으로 1년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하반기에 경영
위기에 직면하는 농가에서 혜택을 받
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자는 원지조사 및 경
영실태평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3월중에 결정되며, 하반
기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7월부터 신
정접수를 받아 8월부터 대상자를 선
정할 계획이다.
/양평=조한민기자 hnmho@kgib.co.kr